

불량식품과 食品公害

한여름철의 무더위가 기승이다. 이런 때면 으레 한번쯤 생각나는 것이 불량, 유해식품과 여름철 건강이다.

등네 뒷골목에서 열심히 얼음쥬스를 빨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을 보라. 그 얼굴엔 유해라든가 불량에 대한 기우나 우려의 빛이라곤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오로지 즐거움 뿐이다. 안심하고 먹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또 그렇게 봐야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떤가. 일부는 사 먹지 말고 타이를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우리의 불량식품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 난다」는 의식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하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금강산도 식후경」등 먹는 것에 대한 속담도 많다. 뿐만 아니라 「먹고 죽는 놈은 색깔도 다르다」는 극치의 쓰라림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군소업자들은 「먹는 장사가 최고」라는 단순영업관 속에 이윤추구에만 급급, 다소의 불량이나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고 또 자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지난 날 물 좋고 공기 좋았던 시절엔 통했

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환경오염이 극히 심한 오늘 날이다.

먹기에 차마 꺼림직할 정도로 식품이 오염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런 오염식품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누가 있는가.

제과점빵이 수십일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식품첨가물의 과다사용이다. 그리고 멧없이 잎과 키만 커가는 요즘의 채소들도 비료나 농약의 덕분이겠지만 역시 꺼림직하다. 이런 요인들에 의한 오염된 식품의 범람현상이 바로 「食品公害」다. 이런 것들을 먹어서 좋을게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먹지 않을 방법이 없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한다. 모순치곤 너무 큰 모순이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고 실상이다.

함량이나 기준미달은 또 어떤가. 얼마전까지만해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천연쥬스등 과즙음료의 일부가 과즙함량 50% 미만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런 상품은 아예 「천연과즙음료」라고 표기



尹錫雄

〈每日經濟新聞社 産業部長〉

하지 말아야 한다. 보사부가 지난 해 말 이 같은 식품함량표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즙음료의 품질기준을 마련, 천연쥬스는 과즙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불량·부정식품의 제조유통과정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지금까지 완제품에만 실시해 오던 검사방식을 지양, 모든 식품의 제조공정별 검사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자들보다 강하다고 한다. 소비자가 그 물건을 안사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미약함을 이용, 廣告와 販促활동으로 소비자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간다.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가게돼 있다. 그것이 불량이거나 유해한 경우엔 더 심하다. 문제는 불량이거나 유해의 심도가 얼마나 깊느냐에 있다. 요즘 천연식품이니 공해없는 자연식품이니 하는 것들이 시중에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물과 공기가

상당히 오염돼 있는 현실속에선 그리 기대할 바가 못된다.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심도를 최대한 낮추는데 있는 것이다.

제조업자도 역시 한 사람의 소비자다. 그도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체다. 한탕 잘 벌여 잘 살면 그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한탕심리 뒤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식품제조업자는 당연히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제는 보다 좋은 식품을 구매토록 노력해야 한다. 값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값싼 것이 결국은 비지떡」이 될 수도 있다. 제조업자들이 싸게 내 놓으면 그만큼 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년에 비해 더위가 심하다. 제조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불량, 유해식품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더위에 지지않기 위해서라도 뭇가를 먹어야 한다.

그것도 불량이니 유해니 하는 걱정은 떨쳐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